

# 자연은 사람·땅·하늘의 스승



◇이현주 ◇장희익 ◇김종철

‘새들은 과외수업을 받지 않는다’

이현주·김종철·장희익 지음  
산티 / 8천5백원

라는 글을 통해서 공간적 개념, 즉 우리가 속한 온생명의 공동체 속에서 나의 생명성을 인식하게 한다. 장 교수는 개개의 생명체(날새)가 태어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지구생태계의 시스템을 하나의 생명체(온생명)로 해석한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은 영국의 한 작은 마을을 세계적 녹색운동의 메카로 만든 인도인 사티쉬 쿠마르의 ‘시간은 무한한데, 바빠 서둘러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란 말을 통해 ‘자동차 대신 걸어다니기를 선택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과 자유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한 시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장 일순 선생의 생전 모습속에서는 비록학과 가난의 철학을, 지역 통화 운동을 통해서

는 자립적 삶의 바탕을 생각하게 한다. 21편의 명상적인 에세이가 담긴 이 책은 자연을 닮은 세 사람의 개성과 경험의 차이만큼 글맛도 달라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더욱이 이 책에는 생명을 노래하는 관화가로 알려진 류연복씨의 작품이 글마다 실려 각각의 글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더욱 함축,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 또 한번 눈길을 사로잡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람, 땅, 하늘, 돌을 거슬러 뚝딱대에 있는 스승이 바로 자연이야.”(이현주 목사)

동서양의 철학과 종교를 넘나들며 우리 사회에 큰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현주 목사, 물리학자이자 ‘온생명’ 이론으로 생명운동 분야에 새로운 흐름을 일군 장희익 녹색대학 총장, ‘척박한 환경에 녹색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불리는 격월간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 교수(영남대 영문학). 종교와 물리학, 문학이라는 출발점은 달랐지만 자연이라는 하나의 길에서 만난 자연인들, 이 세 사람이 쓴 릴레이 에세이 <새들은 과외 수업을 받지 않는다>(산티)는 자연이라는 말없는 스승에게서 배운 ‘넘치지 않음’, ‘비움’과 ‘성경’의 미덕을 찬탄해 전하고 있다.

이현주 목사는 <유마경> <노자> <성경> <예다> 등의 경전과 성철 스님, 신비주의 사상가 루미, 일본 도원(道元) 선사 이야기 등을 통해 사람이 자연에서 무엇을 배우고, 자연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한다. 이현주 목사가 자연에게서 얻은 가장 큰 깨우침은 “자연에는 억지로 하는 일도, 무엇을 위해 하는 일도 없다”는 것.

“꽃은 꽃을 피우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나무는 싹을 내기 위해 따로 노력하지 않는다. 그냥 절로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운다. 새는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 과외 수업을 받지 않는다.” 자연은 말 그대로 ‘절로 그렇게 있음(自然)’을 가르친다고 적고 있다. 장희익 교수는 ‘온생명(global life)’ 주장자 답게

## 자기성찰, 비움과 섬김의 길 제시

### 명상에세이 21편... 세 필자 글맛 독특

‘생명이란 무엇인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등에 대해 철학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출생 이전 하나의 세포 속에 담긴 정보의 출처는 선조들의 생애로 소급된다. 그렇다면 그 정보의 시원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길게는 40억 년이라는 세월 속에서의 ‘나’를 생각하게 한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글이 시간적 접근 방식으로 나의 생명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우주의 눈에는 온생명이 보인다’



물봉선

참나리

금낭화

연꽃

“자연은 늘 우리 곁에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섬세한 애정과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아끼고 지킬 때 비로소 제 본디 아름다움을 전해준다.”

15년 동안이나 스테디셀러 자리를 지켜온 <우리꽃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백가지>의 저자, ‘걸어 다니는 식물도감’, ‘야생화 전도사’, ‘우리 자연유산 지킴이’ 등의 별명을 가진 김태정 한국야생화 연구소장은 우리 자연과 꽃을 찾고 그것을 카메라에 담아 기록하는데 30년을 보낸 사람이다.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김 소장은 우리나라 북녘 끝 백두산 곳곳에서부터 남녘 끝 할라산과 거문도, 독도와 동해안 7번 국도변,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까지를 헤매고 다녔다. 어느 때는 위독

## 우리자연, 토종꽃 찾아 30년

### ‘우리꽃 답사기’

김태정 지음  
현암사 / 1만원

한 어머니를 뒤로하고 눈물을 뿌리며 떠나야만 한 적도 있었다.

<우리꽃 찾기에 인생을 건 사람, 김태정의 우리꽃 답사기>(현암사)는 그러한 여정에서 발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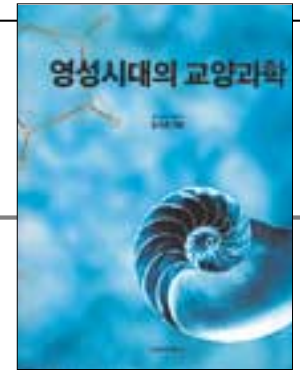
낸 우리 자연유산과 곳곳의 또스한 인심, 정을 간직한 식당 등, 그간 가슴에 차곡 차곡 담아둔 이야기를 남김없이 풀어낸 책이다.

이 책의 내용은 책상 밑을 보다는 현장 공기와 햇빛에 익숙한 이의 글답게 담백하고 진솔하다. 때론 지루한 의문함과 구수한 입담으로 읽는 이의 입가에 슬며시 웃음을 담아주기도 한다. 100여 컷의 컬러 꽃사진과 우리나라 곳곳의 자연 풍광은 생동감을 더한다. 저자는 “우리 문화유산을 찾아보는 것도 귀중하지만 우리 자연, 우리 꽃 답사 여행은 더 귀한 일”이라며 “삼천리 강산 밟길 가는 모든 곳이 자연사 박물관이다. 눈길 닿는 모든 것이 자연 유산”이라고 감탄사를 연발한다.



## ‘영성시대의 교양과학’

윤세중 지음  
정신세계사 / 1만2천원



## 이원론의 한계 극복할 지혜 제시

오르테가가 제기한 ‘유식한 무식군(learned ignoramus)’의 쟁점이 오늘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인문사회 과학자와 자연과학자간의 상호이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그치지 않는다. 인문학, 자연과학적 소양과 지식을 함께 갖추지 못한 채 과연 온전한 세계 이해가 가능하느냐고 하는 문제와 부딪히게 된다. 이것은 고도의 문명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만큼 관찰과 사고와 학습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윤세중 교수의 <영성시대의 교양과학>은 투철한 상황인식에서 출발하여 과학 연구와 과학 교육이 있어야 하는 방식에 대한 진지하고 의미 깊은 모색을 보여준다. 아울러 인간과 자연과 물질의 본질에 대한 고찰을 명석하고 평이한 문장을 통해 밝히고 있다.

저자는 서론에서 “물질세계만을 다루어온 과학이 과학과는 전혀 무관한 영역이라고 여겨왔던 인간 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영성과 밀접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다. 그것은 종교와 자연과학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피상적인 견해에 대한 거부로 기초한, 세계 이해의 한 방식을 시사한다. 장엄하고 신비스러운 우주의 존재와 운행에서 우주적 신성(cosmic deity)을 느낀다는 아인슈타인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신앙과 이성 상호배제적인 것이 아님은 비록 표현이 다르다 하더라도 동서의 최상급 정신들이 꾸준히 시사해온 것이다.

이원론적 접근이 시도되고 그 윤리성이 실천적인 쟁점으로 떠오른 오늘 자연과 인간에 대한 편벽되지 않은 종합적인 시각의 필요성은 절실하고 다급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나온 윤 교수의 저작은 시기적으로나 주제의 성격이나 적정성과 시의성을 조화롭게 갖추고 있다 할 것이다. 이 책은 근대과학의 발전을 더듬고 물질과 자연의 성질을 살펴하면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에 해답을 시도한다. 또 육체와 정신의 상호관계를 검토하면서 의식의 에너지와 진화를 검토한

다. 특히 지구 생태계의 성질을 설명하면서 동양 전통에서 말해온 기(氣)의 이모저모를 현대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종래의 과학개론 흐름의 서적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하며, 신과학운동의 당위성을 역설한다. 저자는 책의 끝 자락에서 “신과학운동은 과학과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과학자와 과학기술자 뿐만 아니라 산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전 분야에 관계하는 모든 이의 생각이 진정하고 순수한 영성을 바탕으로 하여 조직되어야 한다는 운동이다. 진정하고 순수한 영성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주 속에서 인류 모두의 영원한 행복을 도모하는 자기 의식의 핵심인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것은 웅대한 비전인 동시에 현대가 절실히 요청하는 운동이다. 과학은 단순한 지식체계의 일환임을 넘어서 인류 행복에 기여하는 심신상관적인 지혜와 통찰

## 인간·자연·물질의 본질 명쾌하게 규명

### 순수한 영성비탕 신과학운동 주장 펴

지혜와 통찰의 핵심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나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깊은 과학적 접근만이 아니라, 직관적 인식세계에 대한 이해와 함께 물질과 정신, 동양과 서양, 과학과 종교라는 이원론적 한계를 극복하는데서 지혜로운 삶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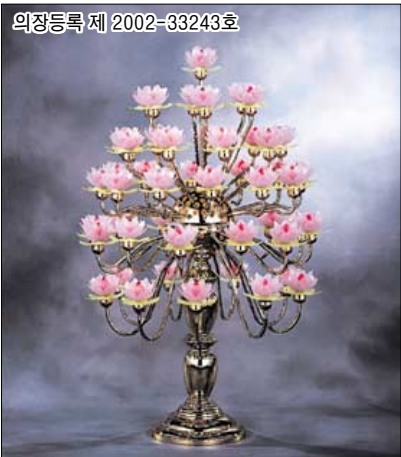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배급주의와 소비적 향락주의가 대세를 이루면서 삶의 질이 전락해지고 인간적 품위를 상실해가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는 감히 정신의 위기관 말을 써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그러한 풍토속에서 윤 교수의 이번 저서는 청년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자를 위시하여 자기 교육을 도모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귀중한 마음의 양식이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 비전문 일반 독자에게는 과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준거틀을 안겨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가 선용을 위해서, 또 평생 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자아 계발을 위해서, 이 책은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유종호 / 문학평론가

<영성시대의 교양과학>은 과학이 단순한 지식체계의 일환임을 넘어서 인류 행복에 기여하는 심신상관적인 지혜와 통찰의 핵심이 될 수 있다.

## 육법등(六法燈)



- 의장등록제 2002-93243호
-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시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 활용 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세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소: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화: (031)541-1417 / 팩스: (031)541-1419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형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尊貴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 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약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염, 신진대사 촉진, 비위약약 능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貴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  
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送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검필(본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蔘